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活性化方案에 관한 研究

文 元 錫*

目 次

- I. 序論
- II.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環境
- III.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現況
 - 1. 中小企業의 海外投資比重
 - 2. 業種別 海外投資現況
 - 3. 地域別 海外投資現況
 - 4. 規模別, 比率別 海外投資現況
- IV.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活性化의 必要性
- 1. 中小企業의 比較優位要素
- 2. 中小企業의 大企業에 대한 比較優位
- 3. 中小企業의 海外投資活性化의 必要性
- V.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活性化方案
 - 1. 個別企業의 立場에서의 課題
 - 2. 政府의 支援方向
- VI. 要約 및 結論

I. 序 論

최근에 先進諸國들은 各種 保護貿易主義의 攻勢가 날로 가열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市場開放 壓力은 물론 換率切上壓力 등 政策에 대한 간섭까지 불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油價, 金利, 달러가치의 下落等 이른바 3低의 好機로 '86년부터 2년간 계속 國際收支黑字時代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의 國際收支黑字로 轉換함에 따라 韓國의 輸出競爭力을 견제하기 위한 元貨切上

* 經商大學 助教授

要求, 市場開放壓力이 드세워지는 한편 國內的으로 國際收支黑字에 따른 海外部門通貨증발로 物價등 經濟安定을 교란할 요인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政策當局에서는 급작스러운 外換流入에 따른 通貨膨脹을 우려하여 輸出企業들의 國際競爭力을 強化한다는 名分하에 이제까지의 輸出支援制度의 中樞的 役割을 해왔던 輸出金融의 對象과 限度를 대폭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財務構造가 취약한 대부분의 우리企業들에게 커다란 負擔要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國內外經濟環境과 經營與件의 급격한 變化는 輸出爲主의 經濟成長政策 및 企業成長戰略에 대한 전면적인 改編과 再考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卽 輸出이 우리의 經濟成長에 끼친 肯定的 効果에 대해서 過小評價할 수는 없으나 向後 韓國企業들이 現在와 같은 輸出一邊度에서 벗어나 海外直接投資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國際化戰略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視覺에서 최근 保護貿易主義의 強化, 資源의 安定的 確保, 國際收支의 黑字에 따른 不作用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代案으로서 海外投資를 活性化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는 주로 大企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中小企業에 의한 海外直接投資比重은 1987年末 現在 全體投資金額의 2.2%에 불과한 극히 微微한 실정이다. 이는 아직도 中小企業이 經營戰略에 필요한 人的, 物的 내지 知的 產業의 所有面에서 취약했고 또한 政府도 우리의 國際收支事情上 적극적인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를 추진시키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에 中小企業部門에서 業種에 따라서는 原料切上과 貨金上昇등으로 인한 國內生産要素價格의 上昇 및 後發開途國들의 추격으로 比較劣位業種이 出顯한데다 國際貿易環境이 新保護貿易主義의 強化推勢下에 構造的으로 中小企業이 大企業에 비해 輸出與件이 더욱 惡化되고 있고 또한 中小企業이 國際水準의 企業으로 육성되고 확산되어야만 우리나라經濟는 지속적으로 發展될 수 있다는 側面에서 中小企業의 育成, 生存, 成長을 위한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의 活性化는 큰 意義를 갖는다 하겠다.

以上の 觀點에서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活性化方案을 摸索함에 있어서 순서상 中小企業의 海外投資에 부합되는 投資對象地域의 環境에 관해 概觀하고, 이어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現況을 관찰한 후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活性化의 必要성과 더불어 向後 投資活性化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II.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環境

최근들어 國內外與件이 크게 變化하고 있으므로 우리 中小企業들도 우리 經濟의 國際化推勢와 輸入規制를 迂迴하기 위한 海外生産基地의 確保, 海外資源開發輸入, 國內産業의 高度化를 위한 斜陽産業의 海外移轉, 技術保護主義의 對處, 講究, 開途國들과의 經濟協力強化를 위한 海外投資

가 시급한 局面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目的에 부응하는 海外投資對象地域의 環境을 그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對 先進國投資環境

대체로 先進國들이 外換去來뿐만 아니라 外國人投資에 대해 自國의 海外投資와 마찬가지로 자유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先進國들이 自國의 投資率 增大를 통한 經濟의 持續的 成長을 위해 外國人投資를 적극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先進國들은 外國人投資에 대한 審査強化, 國產化率提高, 銀行「서어비스」部門에서의 相互主義原則要求等 그 規制가 強化되고 있는 實情이며, 濠洲, 캐나다等 一部 資源保有先進國들은 自國의 長期的인 資源保護를 위해 資源開發部門에 대한 外國人投資를 엄격히 規制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¹⁾

2. 對 開途國投資環境

대부분의 開途國들은 外換去來를 規制하고 있으며 自國經濟에 불리한 投資를 방지하고 유리한 投資를 유치하기 위해 外國人直接投資에 대해 選別的인 許可制를 채택하고 部門別로 規制와 惠澤를 주고 있다.

최근들어 外資導入環境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開途國들은 外國人投資에 대한 優待強化 및 規制緩和의 政策的인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投資에 관련한 行政節次的 簡素화와 인프라스트럭처의 整備 等 週邊環境의 改善까지도 配慮하고 있다.

이와같은 環境下에 우리 中小企業의 海外投資對象地域은 대부분 개도국에 集中되어 왔고 向後에도 集中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소제조기업의 경우 해외투자의 경쟁적 우위가 있는 지역은 후발개도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中小企業經營者는 特히 後發開途國인 경우 政情不安, 政策的 一貫性缺如 等 投資與件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어 投資를 實行에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開途國中에서도 우리 中小企業의 海外投資의 必要性에도 符合될 뿐만 아니라 海外投資對象地域으로서 각광을 받게 될 最適浮上地域은 中美카리브國家들과 아시아國家들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中美카리브國家

1) 李永澤 "中小企業의 海外投資進出支援方案" 「中小企業研究論集」1985, p.191.

이 國家들은 美國의 CBI²⁾制度에 따른 對美輸出關稅免除로 美國市場進出을 위한 前哨基地로 각광을 받고 있는 國家들이다. CBI가 GSP(一般特惠關稅制度)에 비해 여러 면에서 유리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GSP 卒業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GSP 受惠品目이 주로 中小企業製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中小企業의 CBI 진출의 意義는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對美 GSP受惠가 정지되었거나 受惠對象除外品目으로 對美輸出時 高關稅가 부과되는 品目を 대상으로 CBI 활용을 통한 대미수출확대 모색을 위해 카리브지역 진출이 가능한 品目を 적극 검토해야 하겠다.

(2) 東·西南亞國家

東·西南亞國家들은 低賃勞動力을 풍부히 갖고 있고 餘他 開途國들에 비해 投資與件이 安定되어 있는데 최근에 國際貿易環境이 악화됨에 따라 國際收支를 防禦하고 침체된 經濟를 活性化시키기 위하여 外國人投資을 促進하기 위한 여러가지 措置를 講究하고 있다. 主要措置로는 輸出增大, 技術移轉, 雇傭增大에 기여하는 投資에 대한 稅制惠澤의 擴大, 外國人持分制限緩和, 國產化 및 輸出義務 등 諸般義務의 緩和에 自由貿易地帶의 新設 및 擴大를 들 수 있다.

이와같이 東·西南亞國家들이 投資유치에 적극적인 데다 1986년부터 이 地域經濟가 好轉되기 시작함에 따라 外國人投資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 地域은 低賃의 풍부한 勞動力에 따른 生産費用節減要因 이외에도 國土와 人口面에서 방대한 市場을 형성하고 있고 各國마다 다양한 賦存資源을 保有하고 있어 여타 開途國들에 비해 양호한 投資環境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³⁾

Ⅲ.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現況

1. 中小企業의 海外投資比重

中小企業에 의한 海外直接投資에 대해서는 1981年 以前の 統計資料의 未備로 인한 全般的인 投資推移를 記述한다는 것은 곤란하나 1981 年이후의 海外投資推移를 살펴 보면 製造業,

2) CBI (Caribbean Basin Initiative)는 1982年 2월에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한 中美 및 카리브 地域에 대한 美國의 포괄적인 經濟支援計劃을 말하는 이 計劃은 對美免稅輸出保障과 無償援助등을 포함하는데 그 目的은 中美·카리브지역의 經濟를 회복시키고 나아가서 社會福祉增大 및 政治安定을 도모함으로써 이 지역의 共產化를 막자는데 있다.

이 制度는 당초 1995년 9월 30일까지 12년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美議會에서는 CBI 정책의 諸般 問題點補完 및 실시시간 연장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3) 李善浩, "주요국의 海外投資環境" 「韓國經濟新聞」, 88.2.12.

貿易業을 중심으로 꾸준한 伸張勢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中小企業에 의한 海外直接投資는 1970代 중반부터 林業, 水産業 및 個人名義의 製造業投資를 始發로 하여 1980년까지는 주로 資源開發型投資가 이루어져⁴⁾ 1983부터는 製造業 및 貿易業을 중심으로 한 海外投資가 활발히 이루어져 날로 증가하는 推勢를 보이고 있다.

(表Ⅲ-1)에서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件數의 增加推移를 보면 大企業의 경우보다 中小企業의 경우가 大企業의 海外直接投資增加率을 월등히 앞서고 있고 점진적으로 伸張率의 幅이 커지고 있는 바, 이는 林業, 鑛業 및 建設業을 제외한 部門에서 大企業을 능가하여 꾸준한 增加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7年末 現在 우리나라 殘存海外直接投資件數의 534件(966백만달러) 가운데 中小企業에 의한 殘存海外直接投資件數는 101件(21百3拾萬달러)으로서, 全體海外直接投資에서 占하는 中小企業에 의한 海外直接投資比重은 件數面에서 18.9%, 金額面에서 2.2%로 微微한 實情인 바, 아직도 中小企業에 의한 海外直接投資는 낮은 水準이며 初期段階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業種別海外投資現況

(表Ⅲ-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7年末 現在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業種別 構成을 件數面에서 比較해 보면 단순히 現地法人을 本社의 輸出窓口的 役割을 수행하기 위한 貿易業投資가 全體投資의 47.0%를 占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 輕工業中心의 製造業投資가 20.8%, 建設業投資가 8.8%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中小企業에 의한 海外直接投資의 경우 1987年末 現在 製造業이 4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貿易業이 30.7%, 水産業이 13.9%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大企業과 對照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海外投資件數面에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 共히 대부분의 投資가 貿易業 및 製造業에 集中되어 있다.

이처럼 中小企業에서 特히 製造業部門이 높은 投資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은 製造業投資가 他産業部門에 비해 事業의 安定性이 높고 生産設備과 原副資材의 지속적 輸出效果가 있으며, 人力 및 技術의 海外進出效果가 큰 동시에 先進國의 各種輸入規制障壁을 迂迴하기 쉽다는 事實에 起因한다.⁵⁾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 때 製造業에서의 海外投資增加는 매우 고무적인 現象이라 할 수 있다.

한편 (表Ⅲ-2)에서 1987年末 現在 海外投資金額基準으로 業種別 構成을 보면 資源의 長期安定的 確保를 위한 비교적 거대한 資金이 所要되는 鑛業投資가 41.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 朴德明, "韓國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活性化方案" 成大학위논문, 1987.12. p.33.

5) 韓國輸出入銀行, "우리나라中小企業의 海外投資現況과 課題" 第5卷, 第10號, 1986. pp.14-17.

<表Ⅲ-1> 業種別 投資件數 推移

(잔존투자기준)

(單位: 件, %)

		'81달	'82달	'83달	'84달	'85달	'86달	'87달
무역업	전 체	190(59.2)	194	208	218	220	227	251(47.0)
	중소기업	9(26.5)	9	13	15	16	22	31(30.7)
제조업	전 체	33(10.2)	36	50	60	69	87	111(20.8)
	중소기업	6(17.6)	8	14	17	21	25	42(41.6)
건설업	전 체	25(7.8)	33	41	46	45	45	47(8.8)
	중소기업	1(2.9)	1	1	1	-	-	-
광업	전 체	5(1.6)	9	10	11	13	13	14(2.6)
	중소기업	-(-)	1	1	1	1	1	1(1.0)
임업	전 체	8(2.5)	9	11	11	11	10	9(1.7)
	중소기업	2(5.9)	2	2	2	2	1	-
기타	전 체	60(18.7)	71	81	86	85	93	102(19.1)
	중소기업	16(47.1)	14	17	17	17	21	27(26.7)
계	전 체	321(100.0)	352	401	432	443	475	534(100.0)
	중소기업	34(100.0)	35	48	53	57	70	101(100.0)

* ()내는 구성비임.

資料: 韓國銀行

<表Ⅲ-2> 業種別 投資金額 推移

(잔존투자기준)

(單位: 千달러, %)

		'81달	'82달	'83달	'84달	'85달	'86달	'87달
무역업	전 체	31,635(18.2)	36,656	48,078	55,741	64,972	77,044	94,935(9.8)
	중소기업	1,177(16.5)	1,327	2,000	2,151	2,257	3,126	4,755(22.3)
제조업	전 체	27,996(16.1)	33,450	58,992	72,238	91,777	160,483	314,368(32.5)
	중소기업	1,541(21.5)	1,872	3,076	3,730	4,833	5,348	10,651(49.9)
건설업	전 체	22,931(13.2)	30,432	32,999	34,866	35,954	34,888	31,304(3.3)
	중소기업	149(2.1)	149	149	149	-	-	-
광업	전 체	13,250(7.6)	103,007	149,030	168,688	172,674	244,258	396,934(41.1)
	중소기업	-(-)	587	837	1,607	1,607	1,607	1,607(7.5)
임업	전 체	30,267(17.5)	37,151	52,248	57,874	61,085	55,622	54,817(5.7)
	중소기업	2,945(41.1)	2,945	2,945	2,945	2,945	650	-
기타	전 체	47,523(27.4)	48,865	45,036	55,289	49,726	61,046	73,696(7.6)
	중소기업	1,347(18.8)	978	1,017	1,506	1,528	3,049	4,329(20.3)
계	전 체	173,602(100.0)	289,561	386,383	444,696	476,188	633,341	966,056(100.0)
	중소기업	7,159(100.0)	7,858	10,024	12,088	13,170	13,780	21,342(100.0)

* ()내는 구성비임.

資料: 韓國銀行

輸出主導部門의 現地工場設立을 위한 製造業投資가 32.5%, 貿易業이 9.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件數基準으로 가장 큰 比重을 占한 貿易業投資가 대부분이 小額投資임을 알 수 있다.

반면 中小企業에 의한 海外直接投資는 1987年末 現在 21.3백만달러로 全體投資金額의 2.2%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業種別 構成도 製造業 및 貿易業投資가 72.2%로서 대부분을 占하고 있다. 製造業이 貿易業에 비해 投資規模가 큰 바, 이는 製造業의 경우 生産에 필요한 機械 等に 設備投資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製造業에서도 件當 平均投資金額을 비교해 볼 때 中小企業이 大企業에 비해 적은데, 이는 中小企業의 資金調達能力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中小企業의 特性上 보다 勞動集約的인 製品의 生産에 比較優位가 있기 때문이다.

水産業의 경우 1987年末 現在 件數面에서는 共히 14件으로 대기업과 같으나 投資金額面에서는 中小企業이 大企業의 1/10水準에 머물어 零細性を 면치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鑛業의 경우 1982에 投資한 이래 한 件의 新規投資도 없으며, 林業의 경우도 1986年 4월에 그나마 1건도 철수함에 따라 현재 殘存投資는 없는 상태이고, 建設業의 경우도 1985年 이후에는 殘存投資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鑛業, 林業部門의 이러한 現象은 投資懷任期間이 길고 거대한 자금의 所要는 물론 危險負擔이 따르는 業種上의 特性에 起因되는 것으로 보인다.

3. 地域別 海外投資現況

(表Ⅲ-3)에서 1987年末 現在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地域別 構成을 投資件數基準으로 살펴 보면 우리나라의 主要輸出市場인 北美가 38.8%, 東남아가 28.6%, 유럽이 9.7%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는 反面 中小企業의 海外投資의 경우는 大企業과 마찬가지로 北美地域의 38.6%, 東남아 24.7%, 中남미 12.9%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地域別 投資現況은 大企業의 경우와 別차이가 없이 共히 北美地域 및 東남亞地域에 集中하는 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北美地域에 投資增加는 先進國의 貿易障壁을 회피할 목적으로 海外進出이 급증한 데 起因하며, 한편 1986년까지 6件에 머물렀던 中남미에 대한 中小企業의 投資는 1987年末 現在 13件으로서 前年度에 비해 117% 增加한 7件의 新規投資가 이루어져 北美, 東남亞에 이어 重要投資對象地域으로 浮上되고 있다. 이는 美國의 CBI制度에 따른 對美輸出關稅免除로 美國市場進出을 위한 前哨基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럽 및 中東에 대한 中小企業의 投資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反面 아프리카 및 大洋주에 대한 投資는 지속적인 增加勢를 보이고 있는데 大洋주의 경우 1987年末 現在 前年度에 비해 50% 增加를 보이고 있다.

〈表Ⅲ-3〉 地域別 投資件數 推移
(잔존투자기준)

(單位: 件, %)

		'81말	'82말	'83말	'84말	'85말	'86말	'87말
북미	전체	105(32.7)	115	135	156	155	174	207(38.8)
	중소기업	9(26.5)	11	14	17	17	23	39(38.6)
동남아	전체	97(30.2)	105	124	127	138	149	153(28.6)
	중소기업	9(26.5)	11	16	15	17	22	25(24.7)
유럽	전체	48(15.0)	47	44	43	42	44	52(9.7)
	중소기업	2(5.8)	1	1	1	2	2	3(3.0)
중동	전체	27(8.4)	32	35	38	36	35	34(6.4)
	중소기업	5(14.7)	4	4	4	3	3	3(3.0)
기타	전체	44(13.7)	53	63	68	72	73	88(16.5)
	중소기업	9(26.5)	9	13	16	18	20	31(30.7)
계	전체	324(100.0)	352	401	432	443	475	534(100.0)
	중소기업	34(100.0)	75	48	53	57	70	101(100.0)

* () 내는 구성비임.

資料: 韓國銀行

4. 規模別 比率別 海外投資 現況

(表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小企業 海外直接投資의 規模別 現況을 投資件數面에서 보면 件當 30萬달러 미만의 投資가 79.2%를 보인 반면 100萬달러 이상의 投資는 2.9%에 불과하다. 또한 件當 平均投資規模도 大企業의 경우 2.181천달러인데 비해 中小企業의 경우는 211.3천달러 수준으로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規模가 상당히 영세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企業중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Ⅲ-4〉 投資規模別現況
(1987.12.31 現在)

(金額單位: 千달러)

	10만불미만	10만불이상 30만불미만	30만불이상 50만불미만	50만불이상 100만불미만	100만불이상	계
건수	36	44	15	3	3	101
금액	1,748	7,677	5,784	2,065	4,068	21,342

資料: 韓國銀行

한편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比率을 (表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合作投資比率이 45件으로서 全體投資件數의 44.5%를 차지하고 있는 反面 單獨投資는 56件으로서 全體投資件數

〈表Ⅲ-5〉 投資比率別 海外投資現況

(1987. 12. 31. 現在)

	100%	51%-100%미간	50%	49%이하	계
건 수	56	11	12	22	101
금 액	10,748	2,379	3,200	5,015	21,342

資料: 韓國銀行

의 55.4%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中小企業의 投資가 대부분 小規模인 관계로 單獨投資比率이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Ⅳ.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活性化의 必要性

1. 中小企業의 比較優位要素

海外投資事業의 성공적인 遂行을 위해서는 海外에 進出した 企業이 競爭企業들이 保有하지 못한 競爭的 優位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開途國企業의 경우 일반적으로 先進國企業의 경우⁶⁾에 비해 상대적으로 技術·經營能力 등 여러 면에서 劣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開途國企業들도 海外直接投資가 成功하고 있어 先進國企業과는 區別되는 또 다른 競爭的 優位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投資對象國家가 주로 開途國임에 비추어 볼 때 對開途國比較優位要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點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1) 技術的 優位

金基永 教授의 研究에 의하면⁷⁾ 우리나라 企業이 海外進出時 갖게 되는 競爭上의 優位를 製造企業의 경우 最適生産規模와 現地에 적합한 技術에 바탕을 둔 技術上의 優位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技術上의 優位는 現地國企業과의 競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技術上의 優位는 우리 中小企業이 先進國技術을 능가하는 高度의 技術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先進國에서 도입한 技術을 自國의 小規模生産에 적합한 勞動集約的인 技術로 改良하여 先進國의 技術과 區別되는 技術能力을 蓄積한 것으로서 이러한 技術은 後開發

6) 競爭的 優位로서 일반적으로 技術的 優位, 탁월한 마케팅能力, 經營能力을 들 수 있다.

7) 金基永, "우리나라製造企業 海外直接投資戰略에 관한 研究", 「中小企業研究」 第9집 1984.12.

途國인 現地の 낮은 技術水準으로 인해 생기는 相對的 優位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中位技術이 開途國의 環境에도 적합하여 開途國으로의 海外投資時 先進國의 企業보다 競爭上의 優位를 확보할 수 있는 源泉이 되는 것이다.

2) 비교적 탁월한 마아케팅人力

일반적으로 後發開途國은 製品生産에 필요한 部品을 자체생산할 능력이 부족한 반면 低賃의 勞動力이 풍부하여 先進國의 資本集約的 技術은 現地國의 環境에 적합하지 않고 또한 시장이 협소하여 대규모 생산체제보다는 소규모, 다용도의 생산설비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中小企業은 이러한 소규모, 다용도의 技術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 使用方法을 습득하고 있는 技術人力 및 적극적인 思考方式과 마아케팅技法을 지닌 마아케팅要員을 양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後發개도국보다 비교적 마아케팅能力이 우수하다는 점이다.

3) 現地에 적합한 經營管理能力의 優位性

高度經濟成長期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中小企業은 對外去來의 經驗蓄積과 勞動集約的인 産業部門에서 종사한 풍부한 經驗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經營管理能力이 그동안 현저히 함양되어 있어 現地國市場에 적합한 經營管理能力이 중요한 競爭上의 優位要素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 中小企業의 大企業에 대한 比較優位

지금까지 우리나라 中小企業은 大企業에 대한 弱者로서 保護對象으로 인식된 면이 많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激變期에 필요시 되는 特性이 (表IV-1)에서 보는 바 와같이 大企業보다 中小企業에게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中小企業이 大企業에 비해 海外直接投資時 갖게 되는 競爭上의 比較優位要素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企業의 規模面에서 보면 中小企業은 小規模이고 勞動集約的 産業에 상당수가 占하고 있고 技術開發潛在力이 大企業에 비해 크기 때문에 投資單位當 高附加價値에 雇傭創出效果를 유발시켜 投資效果의 極大化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企業의 營業活動面에서 보면 中小企業은 意思決定에 있어서 신속성과 現地の 企業環境變化에 適應은 물론 第3國市場開拓에 있어서도 탄력성과 민첩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3) 企業의 組織과 經營面에서 보면 中小企業은 小規模事業形態로 인해 組織機構間에 調整이 容易하고 大企業에 비해 現地の 地域社會와의 접촉성이 밀접한 관계로 拒否感이 적어 政治的 危險을 줄일 수 있는 優位要素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表Ⅳ-1〉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特性 比較

		大 企 業	中 小 企 業
經濟的 特性	經營方式 所有와 經營 管理方法 經營者 意思決定權 經營政策 意思疏通	資本的·制度的 經營 分 化 科學的·合理的·現代的 專門經營者 權限의 委任(分權의 意思決定) 安定的·保守的 간접적·공식적	人的·私的 經營 未分化 주먹구구식·直觀的·全近代的 所有經營者 1人 또는 家族支配(中央執權) 革新的·進步的·挑戰的 직접적·신속성
環境的 特性	環境疏通 市場規模 競爭狀態 地域社會關係(接觸性) 消費者關係(滿足可能性) 一般的 與件(金融, 輸出, 社會認識 등)	경직적·고정적 全國市場 미약(獨寡占化) 빈 약 小 유 리	탄력적·신속적 地域市場 치열(난립) 밀 접 大 불 리
生産技術的 特性	生産形態 製品主眼點 生産技術의 性格 産業의 中心 技術保有水準 技術開發潛在力	小品種 大量計劃生産 組立 및 完製品 資本集約的 重化學·重工業 高級技術 小	多品種 少量注文生産 部品 및 素材 勞動集約的 輕工業 基本技術 大

資料: 慎侑根, 「韓國企業의 特性과 課題」, (서울大學校出版部, 1984), 301面.

3.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의 必要性

1970年代 中半 以後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는 꾸준히 增加되어 왔으나 절대적인 規模面에서나 相對的인 國際比較에서나 아직은 初期段階에 머물고 있으며,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國內外經濟與件은 企業의 海外直接投資를 더욱 촉진할 必要性을 갖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우리나라 企業의 海外直接投資를 活性化해야 된다는 必要性을 살펴보고

자 한다.

첫째, 國內貨金上昇 및 원貨切上 등으로 向後 競爭力維持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比較劣位 産業을 後發開途國으로 점차 移轉시키는 반면 先進國에서 技術移轉을 기피하는 先進國의 比較優位 技術을 습득함으로써 國內産業構造의 高度化에 寄與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先進國의 保護貿易障壁의 迂廻를 가능케 하여 保護貿易 및 市場開放壓力에 대한 효과적인 對應手段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經濟開發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各種資源의 安定的 確保와 人口過剩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資源내소날리즘의 대두와 함께 經濟成長에 隘路要因으로 作用할 鑛物, 林産 및 農水産資源을 확보하고 海外不動産確保와 적극적인 企業投資移民政策을 병행시키면 國內의 협소한 土地와 過剩人口문제에도 크게 寄與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나라에 대한 先·後進國의 經濟協力要求에 부응하는 手段이 中長期的으로 要求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 經濟가 黑字轉換에 따른 海外部門通貨增發要因을 흡수함으로써 物價安定을 위한 適正通貨管理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여섯째, 世界 經濟가 점차 同質化, 單一市場化해가는 과정에서 海外市場의 生産성과 그 市場에서의 市場占有率(market share)의 提高는 企業의 生存과 成長에 결정적인 影響을 주기 때문에 企業의 生存과 成長의 手段으로써의 海外直接投資의 必要性은 있다 할 수 있겠다.

上記와 같은 必要性에 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手段의 하나로써 海外直接投資의 重要性은 더욱 강조될 수 있는데,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經營資源의 制限 때문에 상당히 制約的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海外直接投資에 있어서 規模의 經濟性이 필수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⁸⁾ 最近들어 開途國에 대한 海外投資의 경우 中位水準의 技術, 小規模資本, 勞動集約的인 業種을 필요로 함에 따라 中小企業進出이 産業構造面, 國際收支面, 雇傭面에서 갖는 經濟的 效果가 큰 意義를 갖게 되었다.⁹⁾

따라서 우리나라 經濟의 諸般條件을 감안할 때 지금이 우리나라 中小企業이 海外直接投資를 活性化하기에 適當한 時期로서 向後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점진적으로 增大될 것으로 예상된다.

V.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活性化方案

우리나라 中小企業에 의한 海外直接投資는 中小企業이 갖는 構造的 脆弱性 및 制度의 不利로

8) 趙東成, "우리나라中小企業의 國際化, 「企業調查月報」1986.3. p.6

9) 李永澤, 前掲書, p.190.

인해 독자적인 推進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國內市場이 협소하고 賦存資源이 빈약한 우리나라 企業들에게 國際化는 바로 生存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成長의 原動力이 되는 바, 企業의 生存과 成長에 직결될 時期를 앞두고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를 活性化시키는 方案은 前章의 海外投資의 必要性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中小企業이 갖고 있는 強點을 극대화하는 한편 中小企業이기에 피할 수 없는 弱點을 보완할 수 있는 方向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以下에서는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方案을 마련함에 있어서 中小企業 스스로 갖추어야 할 課題와 弱點을 補完할 수 있는 政府의 支援方向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1. 個別企業의 立場에서의 課題

1) 海外進出에 관한 확고한 經營비전의 確立

대부분의 中小企業들이 海外事業自體가 異質의인 環境下에서 영위되는 것인 만큼 불가피한 危險이 도사리고 있어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는 現地投資與件에 대한 의구심과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經營姿勢를 갖지 못해 海外進出意思를 갖고 있어도 海外投資로 연결시키지 못하는데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企業의 意思決定權者인 最高經營者의 意識 또한 國際指向的이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는 海外投資에 관한 효과적인 各種·研修 및 弘報活動의 強化로 中小企業의 最高經營者에게 海外投資「마인드」를 형성시켜 海外進出意慾을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中小企業의 最高經營者는 어떠한 目的으로 海外에 進出하는가에 관한 經營哲學을 명확히 하는 것이 現地事業을 成功的으로 이끄는 基本條件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最近 우리나라 中小製造企業의 海外投資에 있어서 일부 제한된 業種이기는 하나 現地市場에서 우리나라 業體들간의 過當競爭과 단기적인 利潤追求에만 급급하여 長期事業計劃樹立에 소홀하거나 海外事業에 필요한 專門人力養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海外投資事業을 계속 추진할 수 없거나 現地事業與件의 惡化로 인해 성급히 海外投資事業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경우도 있는¹⁰⁾ 바 이는 우리나라 中小企業經營者들에게 대한 海外進出에 대한 확고한 經營비전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海外進出에 있어서 기본이념을 現地國의 입장에 서서 國際化를 진전시켜 世界의 企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면 또는 市場이 있는 곳에 生産據占을 保有하고 있어야 한다는 海外進出의 經營비전을 확립, 이를 실천하고 있는 sony의 최고경영자처럼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最高經營者들도 海外進出에 있어서의 확고한 經營哲學 및 經營「비전」을 확립하고, 이의 基低위에 海外投資

10) 池龍熙, "중소기업의 國際化戰略", 「大韓商工會議所」, 1987, p.66.

事業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企業特有的 比較優位要素確保

先進國의 多國籍企業들은 先進技術, 막대한 資金動員能力, 탁월한 마케팅能力 및 差別化된 商標, 汎世界的인 組織構造와 管理能力等の 企業特有的 差別的의 競爭優位를 바탕으로 外國企業으로서의 不利點을 극복하고 現地國企業과의 경쟁에서 絶對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서 강력한 市場支配力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技術水準이 先進國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國際적으로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企業特有的 差別的의 優位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은 海外投資에 있어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後發開途國에 또는 일부 업종에 따라서는 先進國에 비해 競爭的 優位를 차지하여 成功을 거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企業들이 國際競爭에 있어서 이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工程技術¹¹⁾에 있는 바, 이 工程技術을 통해 生産原價의 切減 및 品質改善을 이룩함으로써 比較優位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海外投資의 1차적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企業의 競爭優位에 대한 근본적인 對應方案으로서의 海外投資의 主體인 企業들이 과감한 研究開發投資의 擴充을 통한 技術革新, 卽 新製品의 開發, 工程 및 品質改善 등으로 새로운 差別的의 優位를 創出함으로써 附加價値의 提高에 전력을 경주해야 하겠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國內外的 競爭企業과도 弱點을 보완하기 위해 相互協力體制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관계는 우리 기업들이 뒤떨어진 技術과 마케팅能力을 보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3) 면밀한 事前投資環境分析의 강화

上記項目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뚜렷한 差別的의 優位를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中小企業들이 海外事業에 成功하기 위해서는 海外投資를 決定하기에 앞서 進出對象國의 投資環境에 대한 충분한 情報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치밀한 分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環境分析은 단지 現況分析 및 豫測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環境分析의 結果는 意思決定의 諸段階에 철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中小企業들은 事前情報의 不足과 이에 따른 海外事業安當性調査의 不充分으로 실패한 事例가 적지 않다. 이는 海外投資를 한 中小企業이 市場性分析, 技術性分析, 收益性

11) 이는 先進技術을 습득, 既存의 製品生産工程을 改善, 縮小하여 工程의 效率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分析等 事業妥當性分析에 소홀하여 애당초 收益性이 없거나 낮은데도 무리하게 투자한 事例가 적지 않았음을 뜻한다.¹²⁾

사실 海外投資時 進出對象國의 環境에 수반되는 리스크는 칸트리리스크(country risk)와 비지니스 리스크(business risk)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칸트리리스크는 投資受入國의 政治·經濟政勢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進出企業의 노력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經營環境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철저한 投資環境分析結果 칸트리리스크가 현저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進出을 단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海外進出經驗이 전혀 없는 中小企業의 경우는 가급적 投資環境이 유사한 國家에서 海外進出經驗과 國際經營能力을 축적한 후에 다른 國家로 진출하는 方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지니스리스크는 칸트리리스크 이외의 모든 投資리스크를 의미하는데 投資環境分析을 통해 발생가능한 비지니스리스크의 내용이 명확히 밝혀진 후에는 그것을 극복할 對應策을 미리 강구해야 하겠다.

이와 같이 철저한 海外投資環境分析을 통해 비지니스리스크와 리스크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進出與否, 進出對象國 및 進出時期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中小企業들이 특히 先進國의 競爭企業은 물론 우리나라 大企業에 비해 취약하기 그지 없는 情報의 蒐集 및 分析機能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現地法人에 대한 經營能力的 提高 및 合作投資의 強化

우리나라 中小製造企業의 경우 海外投資時 마케팅能力的 취약으로 現地市場開拓 및 經營合理化的 실패 등 經營能力的 不足으로 海外投資事業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¹³⁾으로 나타났다.

現地經營能力은 中小企業經營者가 現地に 직접 임하여 습득, 발휘하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능력을 갖춘 人材의 確保라는 課題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中小企業의 경우 國際化에 부응할 수 있는 人材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의 養成을 위한 勞力도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¹⁴⁾

中小企業은 高級人力을 확보함에 있어서 大企業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마련이므로 中小企業은 이러한 人材確保上的 不利點을 보완하기 위해 自社實情에 맞게 潛在의 人力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中小企業들이 大企業의 海外進出에서 경험을 쌓은 실질적인 人力이 배출됨에 따라 실질적인 人力과 高學力의 人的資源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現地經營能力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이다.

12) 池龍熙, 前掲書, p.97.

13) 池龍熙, 前掲書, p.66.

14) 中小企業銀行調査部, 「韓國의 中小企業」, 1986, p.91.

그리고 現地經營能力에 자신이 서지 않는 中小企業의 경우 海外投資時에 海外投資에 따른 危險을 줄이기 위해 現地國 企業과 또는 第3國 企業과의 合作投資나 또는 國內企業과의 共同投資등도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政府의 支援方向

1) 海外直接投資분위기 造成

우리나라는 그동안 國際收支赤字基調下에서 행해진 外換에 관한 모든 施策과 規定을 지금도 外貨도피방지차원에서 출발하여 施行하는 한 中小企業投資의 活性化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外화도 圓화와 동일시 하여 그 投資로 인한 損失도 圓화의 投資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분위기가 造成되지 않는 한 現行의 복잡한 規定 때문에 유능한 投資者의 意慾을 좌절시키기 때문이다.

國內投資의 경우 財源調達方式과 投資先을 사전규제하지 않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논리가 海外投資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外換에 대한 思考方式의 전환이 요구됨과 동시에 해외투자에 대한 부수적인 제한조치는 圓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런 분위기하에서 海外投資에 대한 對內外 弘報活動의 強化로 일반국민 및 企業의 海外投資에 대한 認識을 提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許可 및 事後管理節次의 簡素化

調査資料에 의하면¹⁵⁾ 우리나라 中小企業이 海外進出時의 隘路點으로 海外進出節次의 복잡 및 까다로움이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中小企業의 경우 大企業과 달리 복잡한 許可 및 事後管理節次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各種書類를 作成, 提出할 수 있는 人力資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國際收支의 黑字基調가 정착되고 外債를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는 現行制度의 骨格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허가 및 사후관리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中小企業의 海外投資에 대하여는 許可 및 事後管理制度를 점진적으로 簡素化해주거나 또는 이들 節次에 관한 情報提供이나 代行機能을 強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海外投資에 대한 支援強化

우리나라는 아직도 外債가 많은 실정이므로 金融, 保險, 稅制面에서의 支援政策은 限界가 있지만 中小企業海外投資活性化를 위해서 이들 支援政策은 어느 정도 擴充할 필요성이 있다.

15) 中小企業銀行調查部, 前掲書, p.83.

(1) 金融支援의 強化를 위해서는 輸出入銀行을 통한 海外投資金融支援規模를 現行規模보다 擴大하여 現地法人이 운영자금, 해외투자를 위한 市場調查活動等 投資事業準備活動에 필요한 資金등도 支援토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現行 輸出入銀行의 資金調達能力을 제고시켜야 하겠고 또한 支援條件도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2) 保險支援의 擴充을 위해서는 現行 輸出入銀行에서 대행하고 있는 海外投資保險의 付保對象이 非常危險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의 付保對象範圍를 信用危險, 企業危險으로 擴大함과 더불어 保險料의 引下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現行보다 정부의 기금출연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3) 租稅支援의 強化를 위해서는 現地法人의 課稅를 둘러싼 조세마찰에 대한 정부차원의 共同對處方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投資有望地域을 중심으로 二重課稅防止協定締結을 적극적으로 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海外投資情報提供體制的 強化

우리나라 中小企業은 海外에 좋은 投資機會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情報不足으로 投資機會를 상실하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정확한 情報蒐集의 어려움때문에 事業性이 불투명한 경우에도 海外投資를 한 경우가 많으므로 情報支援政策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¹⁶⁾ 왜냐하면 中小企業은 大企業에 비해 海外投資上의 經驗과 支社網의 부족으로 자체수집능력의 부족함은 물론 事前情報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海外投資情報의 蒐集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中小企業의 海外投資를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現地の 各種정보를 蒐集·加工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業體에 제공하는 한편 投資環境 및 投資事業의 妥當性分析能力을 提高시키기 위한 情報提供體制的 整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情報供給源의 擴大를 위한 國家的 施策展開과 함께 中小企業振興工團등 中小企業有關機關에서 海外進出에 관한 情報提供機能을 擴充·強化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海外投資保障協定締結의 擴大

우리나라 中小製造企業의 投資對象地域은 주로 後發開途國에 集中하고 있는 바 이들 국가의 대부분이 政情不安, 經濟政策의 一貫性缺如로 인해 海外投資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현재 14개 國家와 맺고 있는 投資保障協定の 締結을 擴大하여 우리나라 中小企業이 안심하고 投資할 수 있는 環境을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海外投資保障締結은 中小企業의 進出이 有望時되는 地域, 即 人件費가 저렴하고 文化的인 거리감이 적은 東南亞國家와 美國의 CBI制度에 따른 對美迂迴輸出의 前哨基地로 각광을 받고 있는 中美카리브諸國들과의 同協定締結

16) 池龍熙, 前掲書, p.100.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VI. 要約 및 結論

최근에 先進國의 新保護貿易主義의 強化, 資源의 安定的 確保 및 國際收支의 黑字轉換에 따른 不作用등을 해결할 수 있는 代案으로서는 물론 國內市場이 협소하고 賦存資源의 빈약한 우리나라 企業들에게 國際化는 바로 生存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成長의 原動力이 되기 때문에 韓國企業의 海外投資의 必要性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海外投資는 주로 大企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中小企業의 海外投資는 절대적인 규모면에서나 상대적인 國際比較에서 아직은 初期段階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經濟의 高度化過程에서 中小기업이 國際水準의 企業으로 육성되고 확산되어야만 우리나라 經濟는 지속적으로 發展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中小企業의 海外投資活性化는 큰 意義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中小企業의 活性化를 위한 方案은 우리나라 中小企業이 갖고 있는 強點을 극대화하는 한편 中小企業이기에 피할 수 없는 弱點을 보완하는 方向에서 마련되어야 함으로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個別企業의 立場에서의 課題를 보면,

첫째, 海外事業自體가 異質的인 環境下에서 영위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投資危險이 큰 바, 中小企業의 經營者는 어떠한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가에 관한 經營哲學 및 經營비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企業特有的인 比較優位要素確保를 위해 과감한 研究開發投資의 擴充을 기해야 하고 또한 國內외의 競爭企業과도 弱點을 보완할 수 있는 相互協力體制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海外投資를 決定하기에 앞서 進出對象國의 投資環境 및 事業安當性에 관한 分析을 철저히 행해져야 한다.

넷째, 現地法人에 대한 經營能力의 提高와 合作投資의 強化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政府의 支援방향을 보면,

첫째, 海外投資에 대한 對內外弘報強化로 海外投資에 대한 認識을 提高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둘째, 許可 및 事後管理節次의 簡素化를 기해야 하며,

셋째 政府의 支援政策에는 우리나라 여건상 限界가 있지만 金融, 保險, 稅制面에서 擴充할 필요성이 있으며,

넷째, 中小기업은 여건상 投資情報가 부족하므로 中小企業이 필요로 하는 情報를 제공하는 한편 事業의 安當性分析能力을 재고시키기 위한 情報提供體制를 정비·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안심하고 投資할 수 있는 環境을 조성하기 위해 投資保障協定締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以上으로 우리나라 中小企業이 海外投資를 推進함에 있어서 海外投資의 主體는 企業이므로 우리 中小企業은 資本·技術, 經營能力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海外市場에 눈을 돌려 海外進出을 모색해야 하겠고 이와 동시에 海外投資時에 現地에 융합되는 經營方式을 지향함으로써 現지에 뿌리를 내리고 現地地域社會로부터 好感과 親密感을 받아 現地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存在로 認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Summary

A Study on strategi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Korean small-medium firms

Under the recent unfavorable international economic circumstances with ever-increasing worldwide neo-protectionism and the nationalizing of oil & other resources as well as under the difficult tasks to control the increased money due to the balance of payment surplus the necessity of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Korean firms has been more and more emphasiz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overcoming these difficulties for the survival and growth of Korean firms.

But FDI made mainly by Korean large firms must be also increased by Korean small-medium firms because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our country can be established through the internationalizing of small-medium firms of our country.

From the point of these views, this thesis makes an outline of the investment circumstances of main countries,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FDI by small-medium firms, and presents the activation direction of FDI by the firms through the necessity of FDI activation by small-medium firms.

The activation directions of FDI are as follows:

1. The tasks for activation of FDI in the position of firms;

First, managers of small-medium firms need to have the notable management philosophy and vision of FDI in order to secure export markets.

Second, the firms need to secure factors of firm-specific advantage. Third, the firms need to strengthen the data collection ability for the prior investigation of validity of the firm advancement toward host countries.

Fourth, the firms need to cultivate the business management capability of invested firms and make the joint-venture with the firms in host countries.

2. Support policies for activation of FDI in the position of government;

First, Government needs to make the firms improve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FDI. Second, Government needs to simplify the procedures of the permits and *ex post facto* control of FDI.

Third, Government needs to amplify government support policies of FDI.

Fourth, Government needs to make an information network and an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the firms in order to increase the information power of small-medium firms.

Fifth,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strengthen and/or broaden the mutual agreement about investment guarantee with host countries.

Accordingly, in promoting the FDI by the firms, the firms should find ways to extend their business into foreign markets with the capital, technology and business capability for the future; and, at the same time, the firms should make a foundation in host countries through the adapting themselves to their circumstances, and then get their familiarity there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n indispensable factors.